여름철 과수원 관리
과종별 핵심기술 실천요령

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

사 과

- 과실 비대기이므로 안정적인 꽃눈과 수량 확보를 고려하여 여름전정을 실시함
- 원줄기 가까이에 발생하는 웃자람 가지는 영양분 소모가 많고, 햇볕투과와 약제 살포에 방해가 되므로 일찍 제거함
- 탄저병, 겹무늬썩음병, 조팝나무진딧물, 은무늬굴나방 등을 방제함

〈사과 주간부 가지제거〉

배

- 주지 또는 부주지의 측면에서 발생된 새가지를 10~40°가 되도록 끈이나 클립 등을 이용하여 하여 유인함
- 장마철 고인 물은 신속하게 빼주고 바람으로 쓰러진 나무는 세워주며 가지의 상처부위는 톱신페스트, 베푸란 도포제를 발라줌
- 검은별무늬병, 꼬마배나무이, 복숭아순나방, 진딧물 등을 방제함

〈끈으로 새가지 유인하기〉

복숭아

- 줄기의 햇볕 데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근의 웃자란 가지를 유인하여 덮어줌
- 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지면 토양에 물기가 있을 때 신속히 세워 뿌리 피해를 최소화하고, 잎에 묻은 흙 등을 깨끗이 씻어줌
- 세균구멍병, 탄저병, 진딧물, 복숭아순나방, 심식나방 등을 방제함

〈복숭아 세균구명병〉

포 도

- 송이다듬기와 솎기로 적정 착과량이 되도록 조절하고, 봉지 재배를 함
- 세력이 강한 나무는 곁순이 크게 생장하므로 신초당 4~5매 정도의 잎을 남기고 제거함
- 갈색무늬병, 큰송이썩음병, 두점박이애매미충, 큰유리나방 등을 방제함

〈포도 봉지재배〉

감 귤

- 신초가 많을 경우 솎아내어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유도하면 일조부족에 의한 낙과가 적고 품질이 향상됨
- 7~8월에 바람 등으로 어린 과실에 상처가 생기면 외관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방풍시설을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함
- 검은점무늬병, 볼록총채벌레, 깍지벌레, 응애, 궤양병 등을 방제함

〈바람에 의한 상처과실〉

단 감

- 웃자란 가지가 많으면 세력이 강한 가지만 솎아낸 후 가지 비틀기를 하거나 클립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유인함
- 장마철 습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깊게 파고, 초생재배 과원은 풀베기를 함
- 둥근무늬낙엽병, 탄저병, 감나무주머니깍지벌레, 감관총채 벌레 등을 방제함

〈탄저병 발생 가지〉